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VOLUME 283 | DECEMBER 2020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0년 12월호 / 통권 283호

발행일 2020년 12월 1일

발행인 염수정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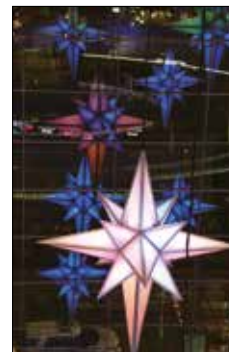
Copyright 2020 ©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VOLUME 283 | DECEMBER 2020

Editor's Note	4
특집	6 대림시기 신앙 생활표
	8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함께 읽는 성경	14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전례와 생활	18 뺨을 맞는 견진성사?
	22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News & Views	24 후원방법
교회의 가르침	26 기도학교
	32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13
신앙과 삶	36 주님께 대한 올바른 의탁(내어맡김)
듣다 읽다 보다	40 고전음악을 듣다
	46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52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58 티나씨의 티비보기
	60 성미술 이야기



THE COVER

2017년 12월 뉴욕 맨하탄

저 별들 중에 한 빛나는 별이 있어 그 빛을 보고 따라 갔습니다.

그 별은 사막이나 광야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 서 있었습니다.

별빛은 모든 사람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양현모_ 사진작가)

2020년, 올해의 마지막 호입니다. 1년, 12달, 365일.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진 한 해를 ‘나는 어떻게 보냈나?’, 12월호 편집을 마치고 돌아봅니다. 2020년은 우리에게 어떤 해로 기억될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찌해 볼 도리 없이 사라져 버린 그런 한 해로만 기억될까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부지런히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한 해였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들에게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면서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전례력으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대림 시기와 세상의 빛으로, 구원자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이 함께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이란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버스나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버스나 기차는 아직 오지 아니했으므로 기다리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 이미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 안에 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림 시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기다림이 끝난 후에 비로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시는 분입니다. 이미 오신 분, 내 안에 현존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림 시기는 주님의 현존을 내 마음에 느끼게 해 줍니다.” (참조. 이제민, 인생날말사전)

그렇습니다. 대림 시기는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대림 시기는 우리를 기다림으로 초대하면서 먼 미래가 아닌 현존하는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안내하는 시간이며, 성탄은 내 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탄생시키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만이 우리의 마음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잘 기다려야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직장인』에서는 특집으로 ‘대림 시기 신앙 생활표’를 구독자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이 생활표를 기본으로 개인이, 가족이, 또는 직장 동료들끼리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언택트(Untact·비대면)의 시대에 대림 시기를 보내는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덧붙임) 지난 『가톨릭 직장인』 11월호에 2021년 월간지 발행의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그 후, 많은 애독자께서 관심과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후원 방법을 「NEWS & VIEWS」 난에 적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톨릭 직장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우식 신학교장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본부장

대림시기 신앙 생활표

†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이에게 평화 (루카 2,14 참조)

† 인간이 무엇이기애 아니 잊으시나이까. 그 종락이 무엇이기애 따듯이 돌보시나이까. (시편 8,5 참조)

대림시기

대림시기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전 4주간을 말하며 이 시기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기다. 또한 교회와 신자 각자가 구세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겸손한 참회의 정신과 회개로 기도와 희생을 하며 가치 있고 풍요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 기쁨과 희망을 갖고 생활해야 한다.

권고사항

- 마태오복음 읽기
- 평일 미사 참례
- 성시간 및 성체 강복 참석
- 신심 서적 읽기
- 성체조배
- 절제 헌금(애금)
- 주 1회 이상 가정기도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성경 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만나 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내 눈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내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내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내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 후

-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길 바라시는가?
-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나는 어떤 은총을 청해야 하는가?

대림 1주	대림 2주	대림 3주	대림 4주
<input type="checkbox"/> 11/29(주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 기도서 P. 88 ◦ 창세기 1~2장	<input type="checkbox"/> 12/6(주일) 가정의 성화를 위하여 ◦ 기도서 P. 105 ◦ 창세기 20~21장	<input type="checkbox"/> 12/13(주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 기도서 P. 39 ◦ 창세기 35~36장	<input type="checkbox"/> 12/20(주일)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 기도서 P. 106 ◦ 창세기 48장
<input type="checkbox"/> 11/30(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 기도서 P. 106 ◦ 창세기 3~4장	<input type="checkbox"/> 12/7(월) 교황님을 위하여 ◦ 기도서 P. 90 ◦ 창세기 22~24장	<input type="checkbox"/> 12/14(월) 성요셉의 도움을 청하며 ◦ 기도서 P. 46 ◦ 창세기 37~38장	<input type="checkbox"/> 12/21(월)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며 ◦ 기도서 P. 85 ◦ 창세기 49~50장
<input type="checkbox"/> 12/1(화) 예수 성심께 자비를 청하며 ◦ 기도서 P. 82 ◦ 창세기 5~8장	<input type="checkbox"/> 12/8(화)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며 ◦ 기도서 P. 105 ◦ 창세기 20~21장	<input type="checkbox"/> 12/15(화) 병자들을 위하여 ◦ 기도서 P. 111 ◦ 창세기 39~40장	<input type="checkbox"/> 12/22(화) 비신자들을 위하여 ◦ 기도서 P. 96 ◦ 마태오복음 1~2장
<input type="checkbox"/> 12/2(수)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 묵주기도 ◦ 창세기 9~11장	<input type="checkbox"/> 12/9(수) 냉담자들의 회두를 위하여 ◦ 묵주기도 ◦ 창세기 27~28장	<input type="checkbox"/> 12/16(수) 우리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 묵주기도 ◦ 창세기 41장	<input type="checkbox"/> 12/23(수)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 묵주기도 ◦ 루카복음 1장
<input type="checkbox"/> 12/3(목) 부모를 위하여 ◦ 기도서 P. 107 or P. 112 ◦ 창세기 12~14장	<input type="checkbox"/> 12/10(목) 부부를 위하여 ◦ 기도서 P. 109 ◦ 창세기 29~30장	<input type="checkbox"/> 12/17(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 기도서 P. 74 ◦ 창세기 42~43장	<input type="checkbox"/> 12/24(목) 하나님께 감사하며 ◦ 기도서 P. 88 ◦ 루카복음 2장
<input type="checkbox"/> 12/4(금)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 묵주기도 ◦ 창세기 15~17장	<input type="checkbox"/> 12/11(금)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 묵주기도 ◦ 창세기 31~32장	<input type="checkbox"/> 12/18(금) 교회를 위하여 ◦ 묵주기도 ◦ 창세기 44~45장	<input type="checkbox"/> 12/25(금) 성탄 본미사
<input type="checkbox"/> 12/5(토)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며 ◦ 기도서 P. 83 ◦ 창세기 18~19장	<input type="checkbox"/> 12/12(토) 사제들을 위하여 ◦ 기도서 P. 91 ◦ 창세기 33~34장	<input type="checkbox"/> 12/19(토) 자녀를 위하여 ◦ 기도서 P. 108 ◦ 창세기 46~47장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

땀의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2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_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김대건 신부는 2021년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희년’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번째 한국인 사제였던 최양업도 동갑이었다. 따라서 2021년 ‘희년’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을 기억하여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땀의 증거자”라는 제목으로 두 분의 삶을 번갈아 조명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세 소년의 마카오 신학교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지 않다. 본래는 폐남 신학교로 보내거나, 만주 혹은 요동 지역에 조선학생을 위한 신학교를 세울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편 전쟁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카오 대표부와 필리핀(롤롬보이), 상해, 장춘의 소팔가자 교우촌 등지에서 학업을 이어갔다.

마카오에서 학업을 시작하던 도중 최방제 신학생이 먼저 선종한 일은 앞서 말하였다. 그때 이미 세 학생은 식사 때 돌아가면서 독서

를 하였던 데, 라틴어를 제법 또렷하게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라틴어 기초를 다지면서 한창 학업에 몰두하던 시절, 1839년 조선에서 기해박해가 일어나던 바로 그 무렵에 1차 아편전쟁의 여파로 마카오까지 위협을 받았다. 부대표 리브와 신부와 교장 칼리 신부, 데플레슈 신부 등은 소년들을 데리고 마닐라로 피신하였다. 그리고 도미니코회의 롤롬보이 농장으로 이전하여 학업을 이어갔다. 그무렵에 쓰여진 리브와 신부의 편지에는 소년들이 어떻게 학업을 하고 있었는지 알려주고 있다. “데플레슈 신부가 매일 조선



천상가족 | 심순화(카타리나) | 캔버스 위에 아크릴 | 당고개순교성지, 2014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땅의 증거자

땅의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2

학생들에게 수업을 매우 잘 시키고 있으며, 그밖의 시간은 중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두 소년은 모두 라틴어, 프랑스어, 중국어에 능통하였다. 최양업은 부제시절(1847년 경) 사전도 없이 프랑스어에서 라틴어로 73위 순교자 행적을 번역한 바가 있고, 김대건은 신학생 시절, 프랑스어·라틴어 통역을 위해 함선을 탄 적이 있으며, 조선 입국을 위한 ‘훈춘 여행기’를 중국어 곧, 한문으로 썼다고 전한다.

그 무렵 칼르리 신부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데플레슈 신부가 조선 학생들을 정식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마닐라 곧 롤롬보이에서 주로 데플레슈 신부의 지도를 받았지만, 리브와 신부도 교리를 별도로 가르치고 있었다. 당시 학생들의 교리공부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어 조금 길게 인용하고자 한다.

“토마스는 아주 건강합니다. 그러나 안드레아는 언제나 두통이나 요통을 앓고 있습니

다. (...) 매일 나는 그들에게 교리를 좀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 예컨대 토마스는 천주 성삼의 제2위인 성자가,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능해야 한다는 단순한 이유에서 제1위인 성부보다 덜 능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들이 어떤 것이든 소죄(小罪)를 고하지 않는 사람은 통회(痛悔)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죄사함을 받으면 독성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제게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대죄(大罪)만은 모두 고해야 하지만 소죄는 고해할 엄격한 의무가 없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내가 그들을 우롱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기까지는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리브와 신부가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서한 1839. 6. 23 마닐라)

어쩌면 조선에서부터 배운 교리가 매우 엄격하였기 때문에, 소년들은 소죄까지 모두 고해성사를 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는지도 모른다. 사제 없이 부모로부

터 배운 엄격한 종교교육이 몸과 마음에 벤 것이다. 그리고 유교적 양반 관료사회였던 조선에서는 위계적 신분제도가 매우 엄격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은 하느님임을 배웠을 것이다.

리브와 신부는 북경을 통해서 들어온 조선인 편지를 받아보게 되었다. 유진길 아우구스티노와 조신철 가롤로가 보낸 편지였다. 그 편지 속에는 신학생의 부모에게서 온 편지도 동봉되어 있었다. 리브와 신부는 편지를 통해서 조선의 상황을 들었는데, 작은 박해는 있지만 아직 큰 박해는 오지 않았고, 세분의 선교사가 모두 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편지가 3월 10일 경에 쓰여진 것이므로 아직 본격적인 기해박해가 시작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리브와 신부는 대표인 르그레주와 신부에게 조선의 소식을 전하면서 두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다.

“두 교우가 사용한 표현으로 미루어 그들은 조선 젊은이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을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토마스는 계속해서 유리한 상태에 있고 천주님께서 그의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조선 포교지를 위해 유익한 몸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불쌍한 안드레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위병과 두통과 요통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리털만 보더라도 그의 큰 두통을 짐작하게(?)합니다. (...) 저는 일찍이 이렇게 추한 머리털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리브와 신부가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서한, 1839. 8. 11)

타지인 열대지방에서 낯선 환경과 음식, 언어에 적응하며 이방인으로서 교육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조선에서 비교적 라틴어 기초를 미리 다졌던 최양업 소년이 훨씬 더 유리했을 것이다. 또한 김대건 소년은 롤롬보이에서 키가 많이 컸다고 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일종의 큰 성장통을

한국교회의 두 기둥, 피의 순교자와 믿음의 증거자

믿음의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2

겪었을 것이다. 김대건이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건강이 더욱 회복된 것은 나중에 세실 함장의 에리곤 호를 타며 통역을 하고 배 위에서 활동할 때였다.

그때까지는 조선에서 박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해 9월 최양업의 부친 최경환이 옥사하고, 3명의 선교사 역시 새남터에서 순교하였다. 그 소식은 한참 후에야 소년들에게 전해졌다. 11월 말쯤 마카오가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고, 마닐라를 출발하여 본부로 귀환하였다. 마카오에 도착하여 계속해서 철학과정을 이어갔는데, 1840년 초에 선교지로 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던 매스트르(Maître)신부가 조선 신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통킹으로 발령받은 베르뇌 신부 역시 본부에서 조선의 학생들을 가르쳤다. 후에 제4대 대목 구장이 될 베르뇌 신부는 베트남 선교를 위해 통킹말 공부를 하면서 조선 신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통킹말 공부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명의 조선인 학생에게 철학을 가르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우는 철학책은 주교님이 저술한 것입니다. 주교님은 이 책을 저술하면서 그것이 우리 포교자들을 위해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는 아마 의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베르뇌 신부가 부비에망스(Bouvier Mens)주교에게 보낸 서한, 1840. 10. 27)

마카오 신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과목(curriculum)을 배웠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알려진 자료가 없다. 당시 아시아지역 사제양성을 위한 신학 교재와 커리큘럼은 일부가 알려져 있다. 그 시기 조선에서 앙베르 주교는 정하상 등 4명의 신학생을 직접 가르치면서, 아멜이 한문으로 번역한 신학 교재를 활용하고 있었다. 페로쇼 주교가 라틴어로 출간한 것을 아멜 신부가 한문으로 번역한 「교의 및 윤리신학」을 교재로 쓰고 있었다. 물론 두 소년은 라틴어와 중국어 둘을 동시에 배우고 있었을 것이다. 이 교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권의 13개 주제는 하느님 존재와 속성, 창조주 하느님, 종교, 그리스도교 교회, 삼위일체의 신비, 강생, 은총, 인간

행위, 양심, 법, 죄, 신학적 덕, 종교적 덕 등이며, 2권에는 여러 성사, 윤리적 문제 및 주님의 기도 해설 등이 나오고 있다. 그 외에도 이들은 목소리 교정을 위해서 이른바 성음악을 배웠을 것이고, 그것이 응용이 되어서 최양업 신부는 후에 천주가사라는 가사문학 형식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조선 신학생을 주로 가르치던 매스트르 신부는 파리외방 신학교 교장 알브랑 신부에게 편지를 보내어 대표부에서 임시로 신학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즉

가능하면 대표부에는 신학생을 받지 않는 것이 좋으며, 대기하는 선교사가 교육을 담당할 것이 아니라 대표가 신학생을 직접 담당하고 라틴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가르치지 말 것, 학생들에게 살림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임시 신학교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소년은 1841년 초까지 철학과정을 잘 마치고, 신학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

목상

가경자 최양업은 어느 환경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였다. 가정이나 직장 생활에서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강론집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1. 이 서간의 특징은 무엇인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은 대단히 훌륭한 서간입니다. 훌륭한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간이 여러 면에서 이질감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간의 많은 부분이 구약 성경의 여러 경신례(敬神禮)와 제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본문과 사건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지상 현실과 역사적 사실과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올바르게 이해하기가 쉽지않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서간 중 마지막 편지인 히브리서는 다른 편지와 다르게 은총과 평화에 대한 기도와 인사도 생략한 채 필자와 수신인도 없이 전해오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1,1-4). 그 때문에 초대교회 일찍부터 바오로가 직접 쓴 친서가 아니라는 논쟁이 대두되었습니다.

2. 누가 썼는가?

학자들은 서기 80년경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신자가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서간의 메시지는 사도 바오로의 메시지와 아주 다르며 그 양식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의 저자는 아마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것 같고, 그 당시의 유다인의 관습보다 구약에 더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이 서간을 왜 썼는가?

이 서신을 기록한 주요 목적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게으르게 되거나, ‘알아듣는 데에 둔하게(5,11)’ 되는 위험성에 대해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

이었습니다. 히브리 서간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교인이 된 후에 그리스도 신앙을 저버린다면(6,6)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독자들 가운데 누가 신앙을 포기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서신을 ‘권면의 메시지’(13,22)로 전하면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과의 친교에 대한 희망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4. 이 서간의 구조와 내용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은 13장으로 이루어진 강론집인 동시에 권고문입니다. 박해가 길어짐에 따라 신앙생활에 지친 사람들,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심오한 그리스도론과 그리스도교의 훌륭한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자이시며,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뜻을 알려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서간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사제’라 불렀고, 그의 십자가는 오직 한 번, 영원히 인류를 대신하여 스스로 피를 흘려 속죄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행해지던 제사의식·사제 제도 등은 이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양되었으며, 구약에서의 계약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계약(신약)으로 바뀌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리말에서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의 결정적 계시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사의 연속적 성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의 완성과 그분의 영광과 영예에 대해 언급합니다(1,1-4). 이어서 교회의 가르침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구약성서를 자주 인용하여 입증하고, 메시아 예수의 업적 또한 모세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후 사제들의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부분을 다루면서 대사제로서의 예수의 성격을 구세사 안에서 밝힙니다(1,5-10,18). 그리고 교훈과 실천에 대해(10,19-13,15) 강조합니다. 이어 맺는말에서는 기도에 대한 권유와 가난한 이들에게 선행과 나눔을 베푸라는 충고를 합니다(13,16-25).

5.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의 중요한 신학적 사상은 무엇인가?

1) 제사장 직분과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은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적으로 정화시켜주었습니다(10,5-10). 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면서(1,5-2,18), 그 이유는 예수가 구원의 진리(2,1-4)를 전해주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재자였으며, 하느님의 계시와 행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서 절정에 도달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중재는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2) 순례와 약속

과거 광야에서 시련을 받은 이스라엘처럼 하느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독자들에게 확고한 신앙을 견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하느님의 약속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3,7-4,11).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경험은 현재 하느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삶과 같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는 교회 공동체를 신앙으로 초대하고 회개의 삶을 일깨우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3) 지속적인 신앙

하느님 백성에게 진정으로 요청되는 것은 '순종'과 '하느님과의 약속에 대한 끊임없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반역과 불순종의 이스라엘 역사의 결말에 대해서 지적하고, 지속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사상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은 오늘날 삶의 방향을 잃고 절망에 빠질 위험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서간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줍니다. 훈계나 권고가 아니라 삶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실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한달 동안 성경읽기

<input type="checkbox"/> 1주간	<input type="checkbox"/> 2주간	<input type="checkbox"/> 3주간	<input type="checkbox"/> 4주간
히브리서 1, 1~3, 19	히브리서 4, 1~7, 28	히브리서 8, 1~10, 39	히브리서 11, 1~13, 25

시간이 나는 대로 짧게 혹은 길게 자신의 시간에 맞게 읽으십시오. 장소는 어디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매일 읽고 작은 소리를 내면 더 좋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기가 어려우면 녹음된 복음을 들어도 됩니다(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소리 성경'). 다 읽으시고 아래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봅시다.

- ①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1,1-2)
- ② 그분께서는 ()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시어, 그만큼 그들보다 위대하게 되었습니다.(1,4)
- ③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뜻에 따라, ()을 통하여, 또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어 당신의 증언을 보태어 주셨습니다.(2,4)
- ④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입니까?(3,4)
- ⑤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4,14)
- ⑥ 여러분 각자가 희망이 실현되도록 끝까지 같은 ()을 보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 사람이 되지 말고, 약속된 것을 믿음과 인내로 상속받는 이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6,11-12)
- ⑦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10,36)
- ⑧ ()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 실체들의 확증입니다.(11,1)
- ⑨ ()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합니다.(11,6)
- ⑩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12,14)

뺨을 맞는 견진성사?

전호엽 프란치스코 신부_ 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많은 신자들이 세례성사에 이어 견진성사를 받으십니다. 견진성사는 세례를 받은 신자가 받는 성사로 주교님의 안수와 축성 성유의 도유를 통해서 성령의 은총을 받는 성사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견진성사의 평화의 인사에는 뺨을 때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견진성사를 받았음을 강하게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 또 앞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한다고 해도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폐지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관습은 옛 시대의 유물일 뿐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받은 견진성사에 대한 소홀함을 떠올려 본다면, 그렇게 우리 영혼을 일깨우기 위한 표징이 왜 필요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견진성사로 굳건해지는 세례성사의 은총

견진(堅振)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 성사는 세례성사를 통해 받은 은총을 더 굳건하게 해주고 증대시킵니다. 그러나 견진성사가 세례성사의 은총을 굳건하게 해준다는 것이 세례가 불완전한 성사임을 전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나타난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의 설명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성사의 은총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원죄와 모든 본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성전이 되어 새롭게 태어난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한다. 견진성사는 이러한 세례의 은총을 성장시키고 심화시킨다. 견진성사는 신자들이 하느님

의 자녀로서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그리스도와 더 굳게 결합시키며, 교회와 유대를 더욱 튼튼하게 한다. 더불어 교회의 사명에 더 깊이 참여하게 하고, 말과 실천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증거하도록 돕는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279, 1316항 참조).”

견진성사의 성령이 세례성사의 성령과 다른가요?

견진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이 세례성사와 다른 성령은 당연히 아닙니다. 성사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다만 같은 성령을 통해서 성사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이 다를 뿐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에는 하느님의 아들이 되게 하였고,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공적으로 드러내며, 더불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받아들일도록 하십니다. 또 오순절에는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버리고 용감히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견진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시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세상 안에서 공적으로 드러내어 신앙을 고백하고 증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즉 세례성사에서의 성령이 정화와 새로남의 은총을 주는 역할을 한다면, 견진성사에서의 성령은 굳건함과 견고함의 은총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입문성사로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던 세례성사는 5세기를 지나면서 하나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면서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세례는 더 자주 베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교세가 확장되고 주교님이 머무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과 시골 마을에도 본당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제는 주교님이 물리적으로 모든 세례성사를 집전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는 당시에 점점

보편화된 유아세례의 영향도 한 몫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제나 부제가 주교님의 위임을 받아 세례성사를 집전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도유와 안수에 대한 부분은 특히 서방 교회에서 주교님의 역할로 남게 됩니다. 이후 주교님이 행하던 이 도유와 안수 예식이 분리되어 독자적인 견진 예절을 형성합니다.

견진성사는 주교님께만 받을 수 있나요?

이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님입니다.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이 신자 공동체와 성찬례(미사)를 거행할 때에 교회는 본래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견진을 받는 신자들은 주교님의 집전으로 성령을 받음으로써 교회와의 유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사명 또한 명확하게 받게 됩니다. 더불어 견진성사를 주교님이 집전하는 것은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강림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데, 그 이유는 사도들이 성령을 가득히 받고 나서 안수로써 직접 그 성령을 신자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견진성사 지침 7항 참조). 하지만 견진성사가 집전되는 곳에서 주교님을 도와 신부님들도 견진성사에 참여하여 성사를 줄 수 있고, 특별히 죽을 위험이 있는 신자들에게는 지역담당 신부님이 아니더라도 어느 신부님이든 견진성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견진성사는 ‘분별력을 갖춘’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알맞은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말합니다. 특별히 연령과 관련하여, 견진 예식서는 어린이들이 분별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 견진성사를 베풀도록 하는 서방 교회에서의 관행을 재확인합니다. 예식서와 보편 교회법에서는 이성 사용이 가능한 나이로 7세를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천주교회에서는 ‘분별력을 가질 나이’를 12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사를 잘 받기 위하여 성사에 대한 교리를 충분히 배우도록 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죽을 위

험에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들은 이런 연령 이전이라도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견진성사를 통해 어떤 은총을 받나요?

견진성사는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용감히 고백하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가톨릭교회교리서』 1303항)” 해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아걸고 있던 제자들은 후에 성령이 임하시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톨릭 전통은 성령의 7가지 은총으로, 인간의 지성과 관련되는 슬기(sapientia: 하느님의 사랑을 세속의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지혜), 의견(consilium: 선악에 대한 바른 판단을 돕는 은총), 통달(intellectus: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은총), 지식(scientia: 믿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식별하는 은총)과 인간의 의지와 관련되는 용기(fortitudo: 신앙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 효경(pietas: 하느님을 향한 자녀적 사랑), 경외심(timor: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마음을 염려하도록 하는 은총)이 주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땅에 심어진 씨앗이 튼튼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견진성사는 세례성사로 시작된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고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나약하고 연약해지기 쉬운 우리의 영혼을 다잡고 책임감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금 성령의 은총을 청해야 할 때입니다.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성 니콜라오

St. Nicholas (축일: 12월 6일)

박희전 루케시오 작은형제회

세례명 가운데 자주 듣게 되는 이름이 바로 ‘니콜라오’입니다. 외국의 유명한 배우나 유명인사들의 이름은 이것의 영어식 표기로써, Nicholas, Niccola, Nick 등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성탄절에 찾아온다고 믿는 그 산타클로스도 결국 성 니콜라오 주교님과 직결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과연 이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있는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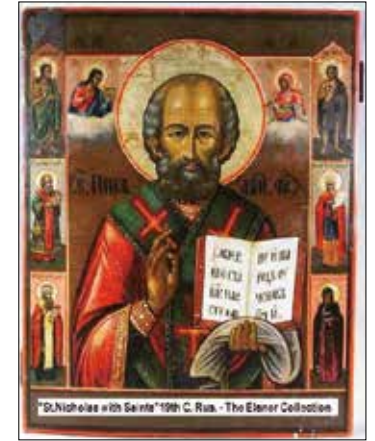
원래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이 니콜라스Nicholas는 두 가지 그리스어 명사의 혼합명사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니케(vίκη, ‘victory’ 승리)와 라오스(λαός, ‘people’ 백성)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승리’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 성인은 당대 위협으로 떠오르던 아리우스 이단에 대한 교회의 변호자로서, 그 이단에 맞서 싸우고 물리친 교부였습니다. 아리우스 이단은 단성론이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가운데 하나를 부정하여, 오직

예수님은 인성만 지니신 분이며 하느님은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이에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 이단이 단죄를 받았는데, 이를 위해 분투했던 성인이 바로 니콜라오 성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믿는 백성을 위한 승리’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니콜라오 성인은 가난한 이들을 대변하기 위해 용기를 내셨던 분이시고, 또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였던 당대의 사람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감내하며 투쟁하여 승리를 이끌었던 분이 니콜라오 성인입니다. 아직도 동방정교회와 로마가톨릭을 모두 통틀어 공경받는 이 니콜라오 성인을 통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백성들의 승리를 위해 하늘에서도 목자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시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결코 허구나



상상의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그런 부류의 일들이라면,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들은 대사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허탈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의 의심과 교만을 ‘이겨내는 증거자’들이 나타나며, 그들의 언행으로 인해 하느님의 실제 현존과 그분의 역사에 대해 진심으로 믿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으로 ‘백성을 위한 승리’를 안겨주는 사람이 바로 ‘니콜라오’의 이름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오’라는 이름에는 자신의 믿음으로 ‘백성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라는 영성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범을 통해 진리로, 믿음으로, 희망과 사랑으로 이끄는 사람, 어떤 헛된 것에 대해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니콜라오, 니콜라스, 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 인성의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

"세상의 폭풍이 당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믿음의 투구를 단단히 잡으십시오.
교회는 사도들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세상의 파도 앞에서 굳건히 서 있으며,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맞서 흔들리지 않는 이 기초 위에서 서 있습니다.
파도에 맞아도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여러 요소들이 큰 소리로 요란하게 포효하더라도,
교회는 가장 확실한 구원의 항구이며 지친 이들을 환영하는 곳입니다."

- 성 니콜라오 -

『가톨릭 직장인』 11월호에 2021년 월간지 발행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더니 많은 구독자분들의 관심과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장사목팀은 아래와 같이 후원 방법을 정했습니다.

1. 개인

개인적으로 할 경우 1구좌 당 7만 원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는 『가톨릭 직장인』은 일 년에 11번 발행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권의 발행비와 배송비를 합치면 약 7,000원 정도 됩니다. 일 년 치를 부담해주세요(1회 발행분은 빼 드릴게요). 개인이 몇 구좌를 하시던 자유입니다.

2. 교우회

교우회 차원에서 후원할 경우 30만 원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는 월간지 맨 뒷면에 교우회 광고를 실어 드리기 때문입니다. 각 교우회가 『가톨릭 직장인』을 선교 도구로 이용하셔서 맨 뒷면에 모임일시, 대표자 연락처 등등. 교우회를 소개하는 글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멋지게 광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3. 보내실 곳

후원금을 보내실 곳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4.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원금을 보내실 때, 개인은 본인 성함을, 교우회는 사업장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5. 문의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전화: 02-727-2078, 010-4799-2078 || 메일: gikjang@catholic.or.kr

Cornerstone



Christmas crib parish Church St. James in Ebing, Germany

The Nativity scene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

“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son. She wrapped him in swaddling clothes and lai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루카 2, 7)

기독교의 전통에 따라 ‘그리스도의 탄생 장면(The Nativity scene (1))’은 특히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상징하는 예술 품의 특별한 전시회이다. 또한, 구유 장면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탈리아어는 ‘Presepio(프레제피오)’, 프랑스어는 ‘crèche(쿠렛슈)’, 독일어는 ‘Krippe(크리페)’, 영어는 ‘crib(크리브)’, 스페인어는 ‘pesebre(프레세브리)’이라 말한다.

“탄생 장면”이라는 용어는 예술에서 ‘그리스도 탄생’의 매우 일반적인 주제를 어떤 상징으로 표현하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전시무대에 모형 인형을 사용하거나 실제 사람들과 동물들이 참여하여 “살아있는 탄생 장면”이라 부르는 재현으로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성탄 기간 전시를 지칭한다. 탄생 장면은 아기 예수,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녀의 남편 요셉을 나타내는 인물을 보여 준다.

예수 성탄 대축일(Christmas)에 부여된 가장 공통적인 영적 의미는 세 가지 탄생과 연결되어 있다. 첫째는 아버지의 영광 중에 이루어진 말씀의 영원한 탄생이며, 둘째는 시간 안에서 비천한 인간으로 탄생하심이며, 셋째는 십만 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심이다.(2)

(1) ‘그리스도의 탄생’의 표기는 정관사와 대문자로 시작한다.

(2) 전례사전 인용



이런, 무서운 말이군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좋은 데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다니,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무에서 존재로, 존재에서 영원으로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생명과 삶의 창조는 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답을 이해하려면 중요한 전제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 1서 4장 16절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에서 인간과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의문의 답을 찾아봅시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명사이기보다는 동사로 표현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활동 그 자체이시며, 항상 움직이시는 세상을 향한 강한 이동이시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멈춰서, 가만히 계시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그러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의미 없는 멈춤은 없습니다. 행여나 하나님께 멈춤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love)은 영어로는 명사이면서

동사입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 습니다. 영어에서 동사와 같은 명사 ‘사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면 대상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는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해석은 전통의 교리에 어긋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 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모순이 됩니다. 또한 인간을 이용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창조에 대해 이렇게 숙고하기도 합니다. “창조를 ‘필연적(necessary)’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창조행위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행동(a fitting act)’이다. 창조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특성을 표현한다. 창조는 자유로운 은총의 행위이다.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며 타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자신과 교체하면서 존재하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사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삼위 안에서 사랑으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삼위 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흘러넘치며, 대상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창조는 참으로 하나님다운 행동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창조에 회의가 듭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무한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상을 떠올릴 수 있는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심지어 비참해지는 듯한 인간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정했으면 했지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모

상이라고 보기에는 하느님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보입니다. 하느님을 ‘닭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었을까? 물음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왜 같지 않고 닭은 창조이어야 하는지 소유의 개념을 통해서 하느님 창조의 과정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와 다른 누구를 또 다른 제3의 사람이 보면, 우리 둘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두 사람의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육신과 정신, 다른 외모, 다른 옷차림에, 가까운 공간일지라도 서로 떨어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내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고,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확연히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두고 그분은 어떤 것은 가지지 못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만약 그러한 하느님 당신과 똑같은 존재가 창조된다면 서로 모든 것을 가진 두 존재, 또는 모든 것인 둘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구별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영혼의 작은 점 하나까지도 심지어 시공간까지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두 존재라면? 이 둘은 서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무한하고 완전하신 하느님과 똑같은 존재가 있다면. 그 말은 곧 그 둘은 다시 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결국 창조는 하느님 당신을 닮아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같으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가 구별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당신보다 열등한 한 존재를 만들어내려고 장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서 상대가 되는 구별이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구별은 분리를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확실히 하느님은 세상에 대해 초월적 존재이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는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엄청난 차이를 가

져왔습니다. 하느님의 완전함에서 구별되고 나니 불완전함이 된 것이니까요. 무한하신 하느님에게서 다른 존재는 유한한 인간으로 나타났고, 이 두 존재의 차이는 무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타난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 당신과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닮아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속성인 ‘사랑’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주어진 것이지요. 우리가 당신을 향한 삶을 선택한다면 언젠가 당신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당신과 닭은 삶을 넘어 당신과 같은 행복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교제, 하느님을 향한 삶의 선택, 이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문은 계속됩니다.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선택을 불완전한 인간에게 맡겨놓으신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니신가요? 하느님 당신이 직접 우리의 유한함을 넘어서서 당신께로 끌어주시면 안될까요? 우리는 그냥 정도가 아니라 너무 불완전한 존재 같은데요. 이 질문에 대한 성찰은 다음에 계속될 것입니다. 여전히 답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찾을 것입니다. ☺

신앙인들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13

보조 생식술에 관한 생명윤리 4

박은호 그레고리오 신부,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나프로 임신법

우리는 지난 호에서 자연주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여성의 주기를 관찰하여 가임기와 비가임기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현재 자녀를 낳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판단한 부부가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자녀의 임신을 미룰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반대로 자녀를 원하는 부부들의 임신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즉, 여성의 주기와 더불어 다양한 임상적 도움을 통해서 난임부부들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그것을 나프로 임신법(NaPro Technology)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인(natural), 가임력(procreative),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나프로 임신법은(naprotechnology)은 인간 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출산이 지니는 소중한 가치를 바탕으로 건강한 자연임신을 위해 가임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나프로 임신법은 “질분비물 관찰기록법인 ‘크라이튼 모델시스템(CREIGHTON MODEL System)’이라는 방법을 기반으로 자궁경부의 점액 분비, 배란, 나팔관, 복강내 구조, 호르몬 문제 등의 난임의 원인을 진단 내리고 이에 대한 내외과적인 나프로치료, 비뇨의학과 상담 및 치료, 전인적인 차원의 심리상담 등을 통해 임신 능력이 회복되도록”(1) 도와줍니다.

나프로 임신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다양합니다. 우선 여성의 건강에 해

가 되는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자연적이고 협력적인 방법**을 이용합니다. 또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 진료를 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연주기법의 방법과 유사하다는 점은 이 방법이 **부부의 대화와 유대를 강화**하는데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성과 결혼 유대에 대한 존중이 기본이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성이 한번 배우면 **평생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마지막으로 나프로 임신법은 여성의 자연적인 가임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절차가 개입되는 보조 생식술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나프로 임신센터를 운영 중이며, 2016년 1월까지 모두 103건의 임신을 성공시켰습니다. 나프로 임신법의 임신성공 확률은 26.8%로 체외수정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공한 부부들 가운데에는 이미 체외 수정에 여러 차례 실패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3)

부모됨의 의미와 불임의 고통

자녀를 가질 수 없거나 장애아를 낳는 것이 우려되어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부부의 고통은 분명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적절하게 평가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자신들의 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갖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열망은 부부의 사랑 안에 새겨져 있는 부모 됨의 소명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망

(1)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210>.

(2) 참조: <https://www.cmcungmo.or.kr/page/department/C/344/1>.

(3)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210>.

은 부부가 치유될 수 없어 보이는 불임일 때에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⁴⁾ 그러나, 자녀는 부모와 동등한 인격체로서 부모의 소유물도, 욕망의 대상도 아닌, 부부 사랑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때문에 어떤 부모도 자녀를 가질 권리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출산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임의 부부 앞에서 우리는 부모 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부부의 부부 행위도 일치와 출산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 부부는 자녀를 낳지 않고도 부모의 성숙함을 갖출 수 있을까요?

먼저 분명한 것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 행위의 의미가 훼손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 행위가 일치와 출산의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그 행위가 바로 ‘전적인 자기 증여’이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이 배우자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출산력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 탓이 아닌 이유로 출산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합니다.

부모 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자녀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부부의 사랑은 이미 부모 됨의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면서 끊임없이 자녀에게 자신을 내어 줍니다. 결국 부모 됨의 소명은 “사랑과 자기 증여의 삶”의 소명입니다. 때문에 진실하게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 줄 수 있는 사랑을 지닌 부부라면 누구나 부모 됨의 자질을 갖고 있으며, 그 소명은 자녀를 넘어, 인간의 생명을 위한 또 다른 봉사의 기회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러한 봉사의 기회 가운데 입양이라는 방법이 갖는 특별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부모의 사랑은 다른 가정의 아이들을 받아들여 그들의 행복과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베풀어 주고자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입양 가운데 원격 입양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생명의 복음, 93항)

부모 됨은 이처럼 생물학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됨의 소명은 결혼한 사람이건, 독신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건,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소명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됨은 인간이 자신을 완성해 가는 길이며, 그 완성의 모범은 곧 참된 아버지이시며 모든 부성의 원천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부모 됨을 향해 나아가면서 점점 더 하느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

(4) 참조: 「생명의 선물」, 2부 8항.

주님께 대한 올바른 의탁(내어맡김)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1. 주님을 초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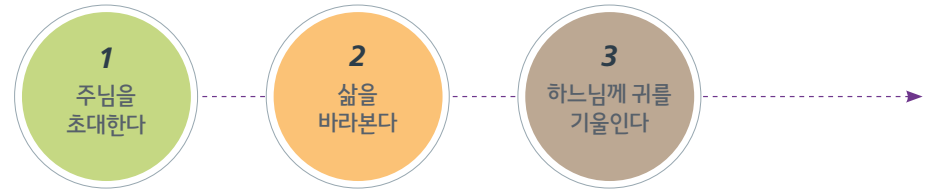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삶을 바라본다.

박 팀장(마태오)은 영세를 받은 지 15년 되었지만 지금은 냉담 중이다. 지난주 팀 단합의 목적으로 팀원을 동반하고 북한산으로 등반을 하러 갔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접질려 오도 가도 못 하게 되었다. 119 구조대 연락도 잘 안 되는 상황이라 팀원 김 주임의 부축을 받아서 겨우겨우 하산하였다. 자신을 등에 업기도 하고, 두 팔로 부축하는 등 거의 5시간에 걸친 고행이었다.

평소, 김 주임을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실적도 부진하다고 야단과 질책을 해 왔었는데, 하산 과정 속에서 보여준 그의 선한 마음, 성실함 그리고 손가락 목주를 보면서 하느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만 믿고 산 지난날이 부끄러워졌다.

그날 등반 사고 이후 박 팀장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냉담을 풀고자 결심하였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에도, 삶의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교만과 형제를 핍박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요지로 본당에서 고해성사를 보았다.



Question

- (1) 오랜 냉담을 풀고 성당에 나가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나누어봅시다.
- (2) 직장 내 어려운 일에 직면하여 기도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해결하려는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는지 나누어봅시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시편 37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고 이 땅에 살며 신의를 지켜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 네 마음이 청하는 바를 주시리라.

네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 해 주시리라.

빛처럼 네 정의를 떠오르게 하시며 대낮처럼 네 공정을 밝히시리라.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내 뜻을 내세우기 보다는 하느님 뜻에 의탁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306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계획의 ‘주인’이시다. 그러나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인간의 협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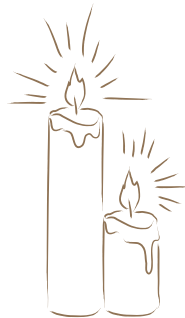
이용하신다. 이는 무능력의 표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느님의 위대함과 선함의 표지이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단순히 거기 있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과 근원이 되며, 이로써 하느님 계획의 실현에 협력하는 품위도 주셨기 때문이다.

307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에게 온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책임을 맡기시어 자유로이 당신의 섭리에 참여할 권한도 주신다. 이처럼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이 창조 활동을 완성하고, 자신과 이웃의 선익을 위하여 조화를 완성시키는 지성적이고 자유로운 원인이 되게 하신다.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하느님의 뜻에 협력하기도 하지만, 인간들은 자신들의 행동, 기도,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계획에 의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때 인간은 “하느님의 협력자”(1코린 3,9)가 되고,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하게 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306~307항]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고전 음악을 듣다

모차르트 생애 최후의 미완성 걸작 - 진혼미사곡(레퀴엠) d단조 K. 626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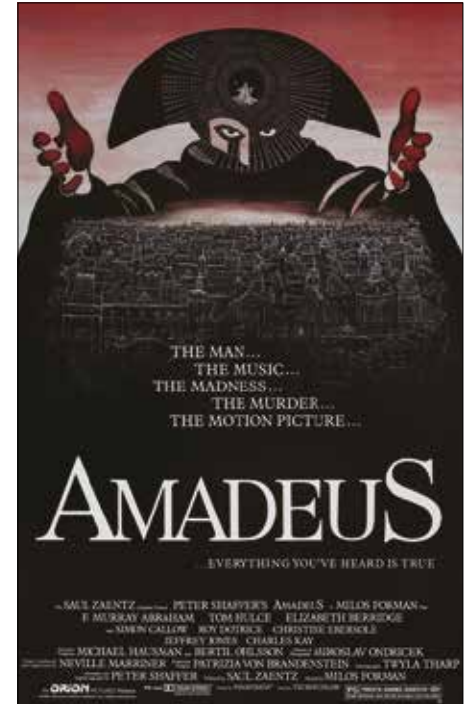
죽을 때 가장 선호하는 곡의 하나로 모차르트의 레퀴엠(Requiem)을 들 수 있다. 여러 유명인들 중 음악가 쇼팽의 예를 들면, 그는 자신의 장례식 미사곡으로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유언하였으나, 장례식이 거행될 파리의 마들렌 성당이 그때까지 여성의 노래를 허락한 적이 없었던 터라 처음에는 불허하여 연기를 거듭한 끝에 허용되었다. 유족들이 쇼팽의 마지막 유언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염원으로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였기 때문이었다. 필자가 연재 중 이번 호처럼 한 곡만을 설명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삶을 마감하는 순간이야말로 삶의 완성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일깨우는 곡이 모차르트의 레퀴엠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톨릭 진혼미사의 전례양식이나 그 의미와 그 음악적 이론을 알아야겠지만, 이번 호에서는 그 복잡한 이론적 설명을 떠나 가장 평범한 말로, 감상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보면, 1791년 겨울 복면을 쓴 괴상한 분위기의 사람이 - 진정

한 의뢰자를 끝까지 밝히지 않은 채 - 상당히 커다란 액수의 돈을 보수로 지급하면서 진혼곡을 의뢰한다. - 사실은 발섹(Walsegg) 백작이 그의 죽은 부인을 추모하려고 익명으로 의뢰하여 자신이 작곡한 것처럼 실제로 연주까지 하였었다. - 모차르트에게 그 수상한 의뢰인은 마치 죽음의 사자로 느껴졌고, 자신이 작곡할 진혼곡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음악이 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 모차르트는 이미 그 직전 오페라 ‘마술피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번 쓰러졌을 정도로 기력이 쇠하여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혼신을 다해 레퀴엠의 작곡에 전념하던 모차르트는 결국 다시 쓰러졌고, 침상에서 말년에 그를 돕던 제자 쥐스마이어(Franz Xaver Süssmayr)에게 구술하면서 작곡을 계속해 나갔다. 1791년 12월 4일 오후, 모차르트의 상태가 위중해졌고, 몇몇의 친구들이 마지막 임종을 위해 찾아왔다. 마지막 순간에도 온통 레퀴엠 생각뿐인 모차르트는 그들에 둘러싸여 음표를 불러주며

작곡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제3부의 여섯 번째 곡인 ‘라크리모사(Lacrimosa)’의 첫 8번째 마디에서 불러줄 힘을 잃었다. 한동한 눈물을 흘린 모차르트는 쥐스마이어에게 나머지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일러 준 후 곧 의식을 잃었고, 끝내 자정을 막 넘긴 시각에 눈을 감아 35년의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이리하여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라크리모사 첫 8마디의 숫자 베이스, 합창과 주요부분까지 완성되었고, 미리 조금 쓰여진 봉헌성가 ‘주 예수 그리스도(Domine Jesu Christe)’ 및 ‘희생제물(Hostias)’의 일부분만이 남게 되었다. 그의 제자 쥐스마이어가 나머지 부분을 완결시켜 레퀴엠을 완성하였다. 영화 ‘아마데우스’에 일부 픽션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마지막 부분은 모차르트의 전기와도 일치하고, 또 자필 악보에 라크리모사의 8마디째에서 멈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사실 그대로 묘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라크리모사는 그 뜻 ‘눈물의 그 날’처럼 레퀴엠 중에서도 우리의 가슴을 가장 메어지게 한다.

Wolfgang Amadeus Mozart · Requiem
 Edith Mathis · Julia Hamari · Wiestaw Ochman · Karl Ridderbusch
 Konzertvereinigung Wiener Staatsopernchor
 Wiener Philharmoniker · Karl Böhm
 Release Date: January 1, 1971
 Labrl: Deutsche Grammophon(DG)
 Duration: 01:04:19
 UPC: 00028947985174



Amadeus (1984) / Poster by Peter Sis



Amadeus (1984) / 출처: IMDB(Internet Movie Database)

그러면 라크리모사는 무엇인가? 간단히 미사곡과 레퀴엠의 형식을 보자.

미사곡은 보통 개회식(입당성가) - 말씀의 전례 - 성찬전례 - 폐회식(파견성가)의 4부로 구성된다. 이 순서는 가톨릭신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개회식에 키리에(Kyrie)와 영광송(Gloria), 말씀의 전례에 사도신경(Credo), 성찬의 전례에는 감사송(Sanctus)와 찬미송(Benedictus), 주님의 기도와 평화송(Agnus Dei)이 차례로 불려진다. 이상을 미사 통상문(Missa Ordinarium)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톨릭 절기에 맞추어 나오는 미사 고유문(Missa Proprium)이 더해진다. 미사고유문의 경우, 말씀의 전례에는 제1독서의 응답으로 화답송(Graduale), 제2독서의 응답으로 부속가(Sequentia), 그리고 복음환호송(Tractus), 성찬의 전례에서는 봉

헌송(Offertorium)과 영성체송(Communio)이 불려진다.

그런데 진혼미사곡(레퀴엠)은 죽은 자를 위로하는 음악이라 보통의 미사곡과는 다르다. 영광송이나 사도신경은 나오지 않고, 입당송 '키리에'에 'Requiem aeternam dona eis, Domine(영원한 안식을 저들에게 주소서, 주님)'이 나온다. 진혼미사곡을 레퀴엠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 나오는 "Requiem('안식'이라는 뜻)"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모차르트는 '키리에'에서 차분한 가사에 맞추어 아다지오(Adagio)로 바로크의 대위법 양식을 따르고 있다. 제1주제를 가사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Kyrie eleison)'에, 제2주제를 '그리스도님 불쌍히 여기소서(Christe elesion)'에 부여하여 장대한 이중푸가를 만들었다. 원래 당시의 표준적인 레퀴엠에서는 입당성가 다음에 화답

송(Graduale) 및 복음환호송(Tractus)이 나오지만, 모차르트는 이를 생략하였다.

그리고 레퀴엠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가 부속가(Sequentia)다. 원래 부속가는 복음환호송(Tractus)에 부속되어 있었다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발전하여, 중세는 물론, 르네상스 초기까지 엄청난 인기를 끌며 5천여 곡에 달하고 지나치게 화려해졌다. 이에 트리엔트 공의회는 그 중 단 4곡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미사 음악에서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기에 이 정도였다. 예를 들어 '서있는 성모님(Stabat mater dolorosa)'도 인기있는 대표적인 부속가의 하나였는데, 너무 인기가 있었기에 금지되었다가 후에 뒤늦게 추가되었다.

모차르트도 자신의 레퀴엠에 부속가를 6개나 사용하여 긴 6악장이 되었다. 각 악장은 첫 가사를 따서 제목을 붙이기도 한다(괄호 안 참조). 그 중 제1악장(Dies Irae)이 '심판의 날(Dies Irae)'인데, 19소절이나 되는 긴 노래로서, 레퀴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Dies irae는 다른 부속가와는 다르게 '반복의 반복'을 하여 [AA.. BB.. CC]... [AA.. BB.. CC]... [AA.. BB.. C.. D..]의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마치 눈 앞에 '심판의 날'이 보이는 듯한 모차르트의 음화기법(tone painting)의 관현악법이 잘 나타난다. 화나고 성난 '엇박자 리듬'과 함께, 관악의 팡파르를 타고 흐르는 현악의 선율이 매우 빠르게(Allegro Assai) 흐른다. 단어 Dies Irae에서는 팀파니 롤이 진동하여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하다. 제2악장(Tuba Mirum)은 Tuba Mirum(기적의 나팔소리)로 시작하는 5소절의 가사로 되어 있다. 트럼본이 계속 끊임없이 울리는 '트럼본 오블리가토(trombone obbligato)'를 사용하여 트럼펫이 심판을 부르고 있다. 1소절은 독창 베이스가, 2소절과 3소절은 테너가 부르다가 3소절 3연에서 단조로 바뀌면서 알토로 바뀌는데, 이를 놓치지 말고 듣자. 4소절의 소프라노에 이어서 마지막 5소절에서는 이제까지의 4성부 독창자들이 화성을 이루어 부른다. 제3악장(Rex Tremendae)은 자비를 구하는 부드러운 간청의 노래로 '두렵기만 한 위엄의 왕이시여(Rex tremendae majestatis)'로 시작하는 1소절이다. 프랑수아 서곡을 연상시키는 화성적 합창이다. 이에 반해서 제4악장(Recordare)은 매우 긴데, 가사가 '영원한 불의 단련'을 의미하는 점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기억을 상기시키는 '리토르넬로(ritornello) 형식'을 쓰고 있다. 제5악장(Confutatis)은 저음의 성악과 현악으로 시작하는데, 가사 '지옥불에 떨어지는(flammis acribus addictis)'에서는 리듬과 톤의 격렬함은 그 내용을 표현한다. 다음으로 나오는 하늘의 축복을 간청하는 가사 'voca me cum benedictis'에서는 높은 음의 현악과 성악으로 애절한 간청을 표현하고, 그 다음 모든 성악부가 조용하고 화성적인 형태로 겸손하게 자신의 죄의 용서를 빌며 무너진 가슴에 치유를 기원한다. 드디어 이제 부속가의 마지막 제6악장(Lacrimosa) 라크리



Amadeus (1984) / 출처: IMDB(Internet Movie Database)

모사다. 두 소절의 가사는 레퀴엠(죽은 이를 위한 기도)의 ‘결론’에 해당한다. 가사를 보자.

Lacrimosa dies illa,	눈물의 날, 그 날,
qua resurget ex favilla	티끌로부터 부활하여
judicandus homo reus.	죄인은 심판을 받으리라.
Huic ergo parce, Deus.	하오니 그 사람을 어여뵈 여기소서, 하느님.
Pie Jesu Domine,	자비로우신 주 예수여,
dona eis requiem!	저들에게 안식을 주소서!
Amen!	아멘!

현악은 ‘눈물’을 의미하는 동기(d-c#-d-e-f)를 계속 연주한다. 지난 호에 소개하였던, 어머니의 죽음에 망연자실했던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e단조 K.304에 나오는 이른바 ‘탄식(눈물)의 동기’와도 거의 유사하다. 가사의 ‘티끌로부터 부활하여(qua resurget ex favilla)’, ‘죄인은 심판을 받으리라(iudicandus homo reus)’ 부분은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시작하지만, 점차 재에서 일어나 최악을 극복하며 커져간다. 그 으뜸은 단어 Reus (라틴어로 ‘죄악’의 뜻)에서 절정에 이른다. 소프라노 선율이 D음정에서 한 옥타브 위의 A음정까지 순차 상승하여 긴장된 고조로서 5도로 ‘반종지’하는데, 여기서 반종지는 완전히 끝내는 종지가 아니라 잠시 숨을 돌려 휴식하는 듯한 종지이다. 정말 죽음에 임박한 자의 애절하고 급



Amadeus (1984) / 출처: IMDB(Internet Movie Database)

박한 심리상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모차르트는 레퀴엠 전곡에 걸쳐 항상 개시는 D와 A의 5도로 시작하는데,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도 그 5도를 써서 숨돌림을 하는 것은 삶을 마감하는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이제 필자의 음악 해설은 여기 라크리모사까지다.

라크리모사 다음에 곡들은 쥐스마이어가 완성하였다. 비록 모차르트가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고 쥐스마이어에게 지시하였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지면상으로도 여기서 제목만 언급하고 마치고자 한다. 이제 모차르트/쥐스마이어의 레퀴엠은 부속가 라크리모사에 이어서, 미사 통상문의 감사송(Sanctus), 찬미송(Benedictus), 그리고 평화송(Agnus Dei)이 이어지고, 미사 고유문의 영성체송(Communio)으로 끝을 맺는다. 이렇게 미완의 걸

작이기에, 지금도 모차르트의 레퀴엠에 대하여는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로버트 레빈(Robert Levin) 등의 음악학자들에 의해 모차르트가 부속가 제6악장 라크리모사의 위 마지막 가사 Amen에 레퀴엠의 첫 부분을 엄격하게 전위시킨 푸가를 쓰려고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아마도 처음과 끝을 하나의 동그라미처럼 이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삶과 죽음을 연결하려고 하였던 모차르트에 숙연하여 진다. 모차르트 임종 옆에 자리하였던 쥐스마이어도 역시 이 점을 느꼈는지, 쥐스마이어가 완성한 마지막 영성체송(Communio) ‘영원한 빛을(Lux aeterna)’에서는 모차르트 레퀴엠의 첫 악장의 곡조를 그대로 반복하고 연결시키고 있다.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베들레헴 - 다시, 빛을 기다리는 곳

심연선 소화데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따뜻한 지중해에서 여독을 풀고 어디로 가볼까 생각을 해봅니다. 12월이고, 첫 걸음이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좋을 것 같네요.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자치구입니다. 지중해 동쪽 끝 작디작은 땅에, 두 나라가 이만큼은 이스라엘, 이만큼은 팔레스타인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19세기 민족주의의 바람이 불 때, 유럽 여거지 전전하며 살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오니즘(시온-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으로 이민을 시작하게 되는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그 행렬이 점점 커집니다. 결국 1947년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분할안이 통과가 되고, 그 뒤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아랍연합국가 간 다섯 차례에 걸친 전쟁과 셀 수 없는 시위와 폭동 등이 일어나게 되지요. 많은 팔레스타인 지역들이 그 전쟁들로 인해 점령당하게 되었고, 현재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이렇게 두 곳이 육지 위의 섬처럼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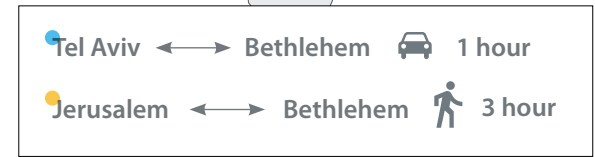
재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서안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텔아비브에서 베들레헴까지 자동차로 가면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만, 이스라엘에서 빌린 차는 팔레스타인지역에 들어가면 보험적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텔아비브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대중교통 편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가야합니다. 예루살렘 숙소에서 차를 두고 버스를 타고 베들레헴에 가거나, 팔레스타인 운전사가 운영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베들레헴에 갑니다. 예루살렘 구도시의 성문 중 북쪽에 위치한 다마스쿠스 문 근처에 팔레스타인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곳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버스편이 있습니다. 약 40분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면 20분이면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걸어서 가면 약 세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성탄절을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좋아집니다.

형형색색의 전구로 꾸며지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트리가 어두운 겨울밤을 도화지 삼아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우리는 정성껏 구유를 만들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러한 성탄을 떠올리며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무시무시한 7미터 콘크리트 벽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콘크리트 벽은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베들레헴의 경계를 따라 울타리처럼 길게 늘어서 거대한 담장을 방불케 합니다. 2004년에 이 분리장벽은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였으므로,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철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크리트 장벽이 있는 곳은 반 이스라엘 정서가 강한 지역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철사로 된 담장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것도 매우 흉물입니다. 가끔 보는 데도 마음이 서늘해지는데 매일 마주하며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따뜻한 마음





이 답답해집니다. 그 답답해진 마음으로 국경 아닌 국경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만납니다.

베들레헴 출입시 이스라엘 군인들이 신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권이 꼭 있어야합니다. 외국 관광객들은 별 문제없이 통과시켜 주지만 팔레스타인 현지인들은 다른 기준으로 다른 곳에서 출입을 관리합니다. 특히 40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기준이 엄격해지는데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랍니다. 이 기준이 외국인 공항 입국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사이가 좋지 않

을 때에는 출입이 매우 까다롭게 통제되는데, 이럴 때에는 과감히 베들레헴을 포기해야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이 관광객에게 어떠한 테러를 하지는 않지만, 군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여행할 필요는 없지요. 심하다 싶으면 아예 출입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오셨어도 베들레헴을 못 가본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담장 안으로는 텔아비브와 비교하면 너무도 낙후된 모습을 하고 있는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경제적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보여 마음이 아픕니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에는 프란치스코회 신

부님들이 성지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보통 성지순례를 가면 성지에 도착하여 하루 한번 미사를 봉헌하는데, 프란치스코회 신부님들이 도와주십니다. 물론 이것도 예약을 해야 합니다.

800여년 전,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에 선교를 왔다가 이슬람교도인 술탄을 만납니다. 그 술탄은 프란치스코 성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감동을 받고 성인과 같은 형제들은 그곳, 성지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클레멘스 6세 교황님이 프란치스코회에서 설정한 성지보호구를 인준해 주십니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성지에서 제

일 많이 볼 수 있는 분들은 갈색 수도복의 프란치스코회 신부님, 수사님들이십니다.

언덕 위에 지어진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인 **베들레헴 예수 탄생 성당**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굴 위에 지어진 성당입니다. 614년에 이스라엘에 침입한 페르시아인들이 대부분의 성당들을 파괴하는데, 베들레헴성당은 내부의 동방박사 그림을 보고 자신들의 조상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에 파괴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후에도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파괴될 뻔했지만, 그들의 경전인 코란에 예수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파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세기에 콘



예수 탄생 교회 입구의 작은 돌문, '겸손의 문'



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처음 건축이 되는데, 그때 만들어진 아름다운 모자이크 바닥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6세기의 유스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지어진 모습입니다. 이교도들의 잦은 침입으로 인해 몸살을 앓던 성당 입구를 작게 만들어서 지금은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가려면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한다는 겸손의 문이 성당의 입구입니다. 입구를 지나 40개의 대리석 회랑을 따라 오른쪽으로 가면,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 있습니다. 지하에는 제대가 있고 14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별이 있는데, 그곳이 별이 머무른 곳,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그 옆으로는 구유가 있었던 곳에 세

워진 제대가 있습니다. 이곳에 경배를 하려고 많은 순례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베들레헴은 1년 내내 성탄입니다. 순례자들이 베들레헴의 가톨릭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는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성탄미사를 봉헌합니다. 전 세계에서 온 신자들이 각자의 언어로 노래하는 성탄 성가가 끊이지 않습니다. 대림기간에는 베들레헴이 조금 더 화려해 집니다. 베들레헴 구유 광장에 엄청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고 구유 또한 설치됩니다. 아이들을 비롯해 모두들 밝은 얼굴로 사진도 찍고 좋아합니다. 무슬림 신자들도 즐거운 표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12월 25일 성탄 자정 미사가 봉헌이 되는데 참석표를 미리 신청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미사이지요. 그만큼 사람도 많습니다. 팔레스타인 경찰이 통제를 하는데 늘 혼잡하기 그지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아직 취약국가로서 정부가 온전하게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외국을 여행할 때에 그곳에 가서 그곳 심카드를 사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심카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심카드도 두 개를 사야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을 하시는 것 보다는 이곳에 가

실 때에는 텔아비브나 예루살렘의 여행사에서 베들레헴 투어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택시를 이용해서 반나절 정도 개인적으로 베들레헴 관광 내지는 순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가장 평화가 필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천년 전 밝게 빛나는 별이 머물렀던 도시인 베들레헴에 다시 그 평화의 밝은 빛이 비추어 차가운 돌로 만들어진 분리장벽과 철 울타리들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군인의 삼엄한 검사 스트레소도 사라지는 날을 오늘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하루의 가장 좋은 시간이 저녁이라면 :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

최대한 신부·의정부 교구 / 대신학교

“나는 인간의 아들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일을 보았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시간 의식도 심어주셨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일을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있는 것은 이미 있었고 있을 것도 이미 있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사라진 것을 찾아내신다.” - 코헬렛 3,10-11,15

11월의 끝과 12월의 시작이 겹쳐지는 몇 주간은 우리 안의 ‘시간 의식’이 깊고 예리해지는 때입니다. 날들의 흐름 속에서 정작 그 본모습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인생에 대해 다시 묻게 되는 때입니다. 지혜 문학인 코헬렛의 구절들을 찬찬히 묵상하며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끝과 시작에 대해 명상하기 좋은 때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짚어보고 애써 외면하거나 스쳐간 순간들을 떠올리다보면 크고 작은 아쉬움들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허무한 감정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한 무엇인가를 회피하거나 애써 정당화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나 자신과, 나의 인생과 화해하는 계기이며 회한이나 고집이 아니라 겸허함과 감사가 내 마음을 이끄는 주선물이 되게 하는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가뻐함과 기대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로



남아있는 나날
 원제 The Remains of the Day
 글 가즈오 이시구로 | 옮김 송은경
 출판사 민음사 | 발행일 2010년 9월 17일 | ISBN 978-89-374-9034-7
 패키지 반양장 · 변형판 140x210 · 314쪽
 시리즈 모던클래식 34 | 분야 모던 클래식 34, 외국 문학

운 한 해를 마음으로 기다릴 준비를 하는데 참 어울리는 우리시대의 명작이 일본계 영국 작가인 가즈오 이시구로의 『남아있는 나날』 (송은경 옮김, 민음사, 2010)입니다.

가즈오 이시구로가 2017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그 전년도에 포크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밥 딜런이 수상했을 때 제법 큰 화제가 되었던 것에 비하면 비교적 조용한 반응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로 기억과 역사라는 윤리적이고 인간학적인 주제를 사려 깊고 격조 있는 문체로 다루는 이시구로의 소설들은 평론가들 사이에 높은 평가를 받아오긴 했지만, 아주 열광적인 지지자를 가진 작가는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정다감하고 조용한 외모와 성품



The Remains of the Day(1993) / 출처: IMDB(Internet Movie Database)

처럼 화려한 명성과는 먼 사람이었고 그의 글들은 과함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때로는 조금은 심심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의 수상이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나이와 작품의 수를 생각하면 노벨 문학상이라는 가장 큰 상을 좀 일찍 받은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러한 담담함이야말로 이 시대에 문학에 기대하는 미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분하게 사유하며 섬세하게 인생을 관조하는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노벨상 위원회가 이시구로를 선택한 것에 대해 이의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대표작인 『남아있는 날들』은 매우 빼어나며 탁월한 작품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작품은 천의무봉의 문학과 함께 독자로서 하여금 인생에 대하여, 삶의 선택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뛰어난 작가이자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인상적인 가르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남아있는 날들』은 가즈오 이시구로의 대표작일 뿐 아니라, 그의 저작 중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일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



The Remains of the Day(1993) / 출처: IMDB(Internet Movie Database)

품의 뛰어난 때문만이 아니라 매우 훌륭하게 영화화되는 행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3년 영화화 되었을 때 대배우들인 안소니 홉킨스와 엠마 톰슨이 주인공인 집사장 스티븐스 역과 상대역인 하녀장 켄텐 양을 맡았습니다. 탁월한 연기력과 지성을 지닌 두 배우의 빛나는 연기가 미묘한 숨은 감정들과 회한의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두 사람의 연기만으로도 충분히 볼 만 합니다만, 더불어 시대극의 거장이었던 제임스 아이보리의 연출도 탁월하고 제작자 이스마일 머천트와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작품들이 대개 그렇듯 무대, 의상, 배경, 미술, 음악들이 매우 뛰어나서 지금 보아도 낡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잘 숙성되었다는 만족감을 줍니다. <전망좋은 방>과 함께 영화 <남아있는 나날>은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대표작으로 남아있고, 영화가 개봉한 후 비평가들의 높은 평가 속에 아카데미 영화상에도 여러 분야에 후보에 올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영화의 우리말 제목은 소설과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소설의 원제는 ‘The Remains of the Day’입니다. 번역제목도 소설의 주제를 표현하고는 있지만, 영어 원제는 조금 더 다양한 생각들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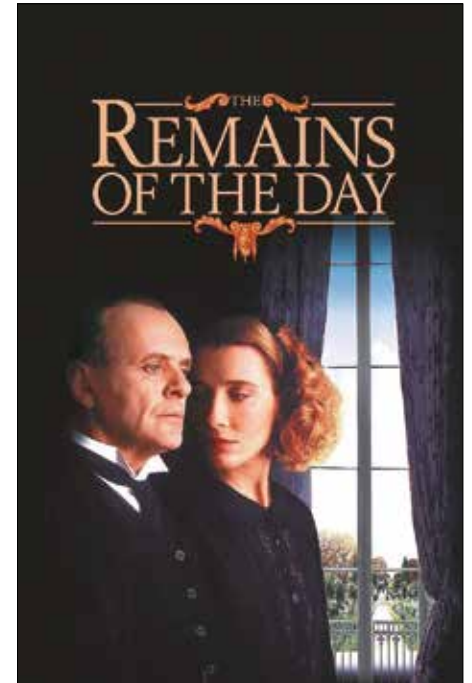
게 합니다. 인생의 남아있는 날들과 함께 그 날 하루의 남아있는 시간에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이는 인생의 남은 시간에서 내가 여전히 맞이할 것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날 하루 동안의 여정에서 내가 남겨놓은 흔적,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내가 행한 크고 작은 회한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남아 있는 나날』에서 이시구로는 그가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다루어온 기억과 성찰이라는 주제의 윤리적 차원을 문학적으로 매우 탁월하게 형상화 하고 있습니다. 주제와 흐름에 있어 일본을 배경으로 하여 군국주의에 ‘부역’ 하였던 한 저명한 화가를 주인공으로 삼은 초기소설인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김남주 옮김, 민음사, 2015)를 여러 면에서 떠오르게 합니다. 이제 시선과 사유는 더 예리하고 깊어졌고, 심리와 시대를 묘사하는 대가다운 솜씨는 완성형에 다다랐습니다. 서서히 물에 젖어드는 것 같은 문학적 매력과 함께 매우 근원적인 윤리적 성찰로 독자를 초대합니다. 그 초대는 사려 깊고 나지막해서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조용하게 도닥대며 공감하는 벗의 손길 같습니다.

소설은 인간이 자기의 과오 속에서 배우는 존재이며, 여기에 기억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인생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소설이 보여주는 윤리학은 고백성사에서 신앙인들이 체험하는 종교적 깨달음과 많이 닮아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기억함으로써 비로소 그 잘못에서 배우고 고백하며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비록 죄의 기억은 고통스럽지만, 그 기억 없이 자동적으로 죄에서의 해방과 용서의 체험이 오지는 않습니다. 고집스런 자기 정당화나 자신의 오류

를 보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동기들에 저항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황혼에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를 소설은 보여줍니다.

영국의 대저택 달링턴 홀의 집사인 스티븐스가 은퇴에 가까운 나이가 된 1956년의 여름, 비로소 홀로 떠난 6일간의 휴가가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여행길에서 그는 기억하고 상기하려는 노력을 통해 그 당시 자신과 대면하고, 진실을 묻기를 끊임없이 유예하였던 결정적 생의 순간의 의미를, 긴 세월 후에 비로소 대면하고 인식합니다. 이미 많은 것은 사라져갔고, 바꿀 수 없고, 허물과 실수와 회한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의미에서 삶을 교정하고 바꾸는데 성공합니다. 기억을 미화하는 대신, 자신의 허물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남아 있는 나날’들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라면 ‘저녁은 하루 중에 가장 좋은 때’라며 스스로를 위로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스티븐스가 생애 처음으로 영국의 시골을 여행하며 절경을 보며 감탄하는 장면들은 자신의 과거를 대면하는 힘겨운 여정을 끈기 있게 마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자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



Movie Poster: The Remains of the Day (1993)



가즈오 이시구로 (2017년 촬영)

티나씨의 티비보기

서울 안 개구리, 화면 속 집구경

김은영 크리스티나_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언론홍보 담당



나는 아파트도 아닌 다세대주택의 거주민이다. 우리 가족의 부동산이 실거주하는 서울 번두리의 집 한 채에 머문 것은 IMF 구제금융 시절에 살림이 어려워져 집값을 마련할 수 없었던 탓이 가장 컸다. 살림이 회복된 뒤에는 살던 지역에 큰 불만도 없고 부동산 투자에 여력도 없어 가족들의 여윗돈을 모아 전세살이를 탈출하는 데 그쳤다.

생활 여건이 편리한 서울에 집이 있음은 다행이지만 불편한 점도 적지 않다. 일상이 된 층간 소음, 다세대주택으로 새로 짓는 이웃 건물들의 공사 소음, 손님맞이는커녕 세간을 늘리기도 어려운 실내 공간, 어느 집 차가 몇 시에 나가며 불의의 침입자는 없는지 눈치싸움을 해야 하는 2행 2열 간이 주차장.

그래도 서울의 번두리를 못 떠나는 이유는 직장을 비롯한 생활 기반 때문이다. 지금의 출퇴근 거리도 멀지만, 더 싸고 쾌적한 집을 얻으려면 아침저녁으로 더 많은 시간과 체력을 길에 쏟아 부어야 한다. 거주 수요가 많은 대도시이다 보니 서울의 집들은 비싸게 사

서 좁은 공간만을 얻는 곳이 되었다. 층수를 올려 거주세대를 늘린 서울의 집들은 한정된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묶여 부대끼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세난에 따른 주거 불안이 계속되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쾌적하고 안락한 집에 대한 열망은 TV 프로그램의 매력적인 소재로 떠올랐다. 2019년 초에는 집을 건축의 관점으로 들여다본 '건축탐구 집', 부동산 중개소의 매물을 실수요자의 생활 방식과 요구에 맞춰 소개하고 분석하는 '구해줘! 홈즈'가 방송되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단기 프로그램이지만 캠핑용 간이주택(트레일러하우스)이 산과 들로 옮겨 다니는 '바퀴 달린 집'이 인기를 모았다. '서울엔 우리집이 없다'는 자연 친화적이고 널따란 서울 밖의 '드림하우스'를 탐방한다. 장수 프로그램들로 범위를 넓히면 시즌 형태의 농어촌 자급자족 예능 '삼시세끼', 중·노년 세대에 인기

가 높은 '나는 자연인이다'와 이를 모방한 생활정보 쇼의 에피소드들도 귀농 귀촌 생활자들의 주거환경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서울의 집이 갖지 못한 미덕을 입을 모아 찬양한다. '건축탐구 집'과 '서울엔 우리집이 없다'가 주로 다루는 귀촌자들의 전원주택은 거주자의 개성을 살린 넉넉한 생활공간, 맑은 공기, 신록이 우거진 주변 환경, 시원하고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한다. 도시생활자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구해줘! 홈즈'는 부담스럽지 않은 집값을 맞추다 보니 수도권 아파트가 아닌 집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어, 접근성과는 별개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상상을 자극한다.

떠나기만 하면 자연이 앞마당이 되는 '삼시세끼'와 '바퀴 달린 집'은 공동주택 생활자들이 잃어버린 집의 기능을 환기시킨다. 그것은 생산 활동과 놀이의 공간인 마당의 존재, 그리고 마당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좋은 사람들과의 사귄과 환대이다.

끼니를 위한 취사는 서울의 아파트에서도 집집마다 이루어지지만, 예능 속 취사는 편의 시설은 부족하지만 공간은 넓게 탁 트인 마당에서 공동체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요리에서 서툰 사람도 너그러이 봐주게 하는 열린 자연의 분위기는 밥 짓는 행위를 공동체의 즐거운 놀이로 승화시키는 동시에 구성원들의 유대감을 촉진한다.

공동주택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TV 속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들은 즐거운 눈요깃거리다. 하지만 그 풍경 뒤에 존재하는 주인들의 사연과 고충은 편집되고 없다. TV에 나온 집들의 후유증인 사람들의 무책임한 관심 역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쾌적한 주거환경은 돈의 문제라는 사실도 변함없다. 결국 각자의 이유로 서울살이를 포기할 수 없는 이들에게 화면 속의 집은 잠시의 기분 전환에 그치는 '그림의 집'일 뿐이다. ☹️

성미술 이야기

하느님의 세상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다

정용모 신부, 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우리는 어느새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하였다. 항상 이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게 된다. 특히 올해는 우리의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과 사회, 자연과 환경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되물게 한다. 어쩌면 우리는 이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본연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 가는 여정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힘든 시기에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다시 맞이한다. 해마다 이맘때면 늘 맞이하는 축제의 날이지만, 올해 성탄의 의미는 더욱 깊고 새롭다.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세상에 연약한 아기로 태어난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창조주 하느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 것은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어찌 그 큰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서울대교구 돈암동 성당에는 성서를 주제로 한 유리화가 장식되어 있다. 이 유리화는 수도자면서 화가인 김경순 수녀(1956-)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그 가운데서 예수 성탄은 두 창문에 한 쌍으로 표현되어 있다. 왼쪽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기 예수가 성모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긴 모습이다. 오른쪽 하단의 십자가 모양이 새겨진 왕관 세 개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메시아 탄생의 별을 따라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에 와서 경배하며 봉헌한 세 가지 귀중한 선물, 즉 황금, 유향, 몰약을 상징한다. 동방 박사들은 존귀한 선물을 아기 예수에게 드린 후, 다시 자신들의 고향인 동방으로 돌아갔는데 그 모습이 오른쪽 상단에 희미하게 표현되었다.



작가는 아기 예수의 탄생과 동방 박사 경배 장면을 단순하면서도 따뜻하게 표현하였다.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 요셉을 유리화의 아랫부분에 표현한 것은 하느님이신 아기 예수가 우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세상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기 예수께 예물을 바치고 돌아가는 동방 박사들이 마음속에 하늘을 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오른쪽 가장 높은 곳에 묘사하였다.

성탄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느님께서 낮은 곳에 있는 인간을 찾아온 엄청난 사건이다. 구세주이신 예수는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과 참 빛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오순도순 살도록 초대하셨다. 이 초대는 2000년 전뿐 아니라 2020년을 마감하는 올 성탄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의 귓전에 울린다. 🎄



명동밥집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 14.16



명동밥집은 한국 가톨릭교회와 서울대교구의 상징인 '명동'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입니다.

위치 : 명동 옛 계성여고 셋별관(학생식당) 1층
 운영일 : 완공 후 (2021년 1월 예정) 주 3일(수,금,일)
 무료 급식 대상인원 : 하루 약 200명

무료급식소 명동밥집 후원 및 봉사자 모집
 신청방법 : 홈페이지 obos.or.kr
 후원 02-774-3488 자원봉사 02-727-2286

명동밥집 후원계좌	예금주
우리) 1005-604-022962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무통장 입금 후 본부로 연락하여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꼭 알려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미증발급 및 허위발급에 대한 제재 강화로 기부금을 보내주시는 분 성함으로 발급가능합니다. 문의 02)774-3488



Christmas wreaths

A wreath(/ri:θ/) is an assortment of flowers, leaves, fruits, twigs, or various materials that is constructed to form a ring.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wreaths are used typically as household ornaments, most commonly as an Advent and Christmas decoration.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